

##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

글. 이선영 미술평론가

'얼굴 없는 초상'은 시각적 관습에서 화면 중앙에 놓일만한 주인공들의 얼굴을 프레임 밖으로 추방한 역설적 초상들이다. 사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진의 존립 근간이 되어왔던 초상 사진은 더 이상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스타일로 찍히고, 소통되어 왔다. 일찍이 인간은 신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 그 행복한 시대의 유비의 그물망은 찢어져 버렸다. 얼굴은 손바닥만한 작은 공간 속에 매우 많은 것을 담아왔지만, 이제 얼굴은 그 깊이를 잃고 표면화되었다.

수없이 찍히고 수없이 휴지통에 버려지는 사진의 대중화와 오락화가 가능해진 디지털 시대에,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얼굴에 대해 우리는 지나치게 쿨cool하게 대한다. 현대인은 몇 가지 전형적인 표정으로 자신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이모티콘처럼, 순간순간 대처해야 할 몇 개의 가면들을 소지하고 다닌다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강은 여전히 인간의 얼굴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전 시대의 방식은 아니다. 실제보다는 실재를 재현하는 장치들이 더 중요해진 시뮬레이션의 시대에, 정강은 장치의 새로운 배치를 통해서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사진으로 인해 비로소 가능해졌던 '기계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발터 벤야민)은 아우라를 소멸시키지만, 순간적인 시공간의 고착을 통해 찍히자마자 향수의 대상이 되는 초상사진은 나름대로 아우라를 보존해 왔다. 초상사진의 이러한 예외성은 사회 생활을 해야 하는 인간의 존재 조건으로 인해,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해야 하면서 같은 족속들을 관찰하는데 소홀히 할 수 없었던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자체가 사물화, 코드화 되어 가는 시점에서 아우라의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제 코드화 될 수 없는 개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란 더욱 어려워졌다. 사진이 흔해질수록, 인간을 파악하기는 더욱 힘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수잔 손택이 '사진론'에서 말하듯이, 사진을 통해 이해 가능한 것이 가정된다 할지라도 사진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의 매력과 흥미를 야기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정강의 '얼굴 없는 초상'은 얼굴을 제외하고 인물을 찍는다. 수많은 복제물을 통해 닳아빠진 얼굴을 제외한다면 어떤 것이 시야에 들어오게 될까. 작품들은 가혹하게 프레임 바깥으로 밀려난 얼굴 대신에 그 인물을 이루고 있는 세세한 것들을 부각시킨다. '얼굴 없는 초상'에서 정강은 얼굴이 함께 있었으면 자칫 평범하게 보일 법한 사람들의 일부를 보여준다. 1x1m 사이즈의 정방형 사진은 가로가 잘림으로써 배경이 덜 나오고, 인물에 집중하게 한다. 실내이거나 실외인 배경, 옷차림, 피부의 상태, 소품 등은 대략 찍혀있는 사람의 성별과 나이, 계층 등을 추측하게 한다. 그러나 '힘없고 가난한 노파', '세련된 도시의 여자', '가사 노동하는 주부' 등으로 유형화 되지는 않는다. 대략 예상은 되지만, 특정한 역할자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인물이 유형화 된 사진에 비한다면, 얼굴이 생략됨으로써 관객은 더 많은 것을 읽게 된다. '얼굴 없는 초상'은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인 머리를 괄호 침으로서 얼굴을 감추지만, 그렇게 재현된 개인을 파악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작품들은 주변에 집중함으로써 얼굴이 있었으면 간과했을 그 사람의 소소한 취향, 그리고 우연히 포착된 독특한 사물의 배열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준다.